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윤희정** · 신혜리*** · 김영선****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1,662명이다. 분석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고 사회적 자본 수준, 연령이 높으며, 여성, 비독거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중고령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Yoon, Hee-Jeong** · Shin, Hye-Ri*** · Kim, Young-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of the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affects life satisfaction and whether social capita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data of 1,661 people aged 55 or older from the 「2018 Survey on Digital divide」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aron and Kenny(1986)'s steps for media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s of social capital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ged people have a higher life satisfaction when they are women and older, do not live alone, have higher levels of digital informatization usage and social capital. In addition, social capital also revealed to have a mediating role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social capital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s a way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or the elderly people.

Keywords :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mediating effect

Received Aug 10, 2020; Revised Sep 28, 2020; Accepted Oct 15, 2020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3A2075402)

** First Author, Master Course, Dept. of Gerontology, Kyung Hee University(834qkqh@khu.ac.kr)

*** Co-Author, Ph.D, Dept. of Gerontology, Kyung Hee University(ltc.shinhyeri@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Gerontology, Kyung Hee University(ysunkimi@khu.ac.kr)

www.kci.go.kr

I. 서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기준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2067년에는 47.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예정이다(Statistics Korea, 2019).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중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령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Hwang & Hwang, 2017; Kim, et al., 2020; Lee & Lee, 2019).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능정보사회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 쇼핑, 은행 등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제공되고 있어 개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7).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Lee, 2019; Hwang, 2019).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취약계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7.7%에 해당하며, 특히 중고령자는 62.8%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또한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모두 취약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Sung & Hwang, 2017).

중고령자는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모두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과 신체

적·심리적 한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 감소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자본 또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 Sung, 2012; Kim, et al., 2015). 하지만 Lee and Kim(2010)은 온라인 활동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더 넓은 사회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계를 강화시켜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Sum, et al., 2008).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으며(Hogeboom, et al, 2010; Lee & Lee, 2014),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다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Kim, et al, 2015; Yoon, et al, 2016).

기존의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사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Khalaila & Vitman-Schorr, 2018; Lissitsa & Chachashvili-Bolotin, 2016), 디지털 정보 생산·공유 활동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Dorin, 2007; Jeong & Lee, 2012; Kang, et al, 2014), 정보화 활용 정도와 정보화 생활 만족도의 관계(Kim, et al 2012)등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저히 낮은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매개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자본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Hogeboom, et al, 2010; Lee & Lee, 2014),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Kim, et al, 2015; Yoon, et al, 2016),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 배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격차를 산출한 것으로, 컴퓨터·모바일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양적 활용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정보기기의 이용여부를 말하며, 질적 활용은 업무, 여가, 의사소통, 대인관계 활용 등의 서비스 이용정도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 삶의 질, 웰빙, 행복, 우울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중고령자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는 부처와 법률, 규정 및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UN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정의되며, 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 등에서는 ‘중고령자’ 또는 ‘고령자’라는 용어를 학자에 따라 45세 이상 또는 55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만 55세 이상 인구를 장노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Kim, et al(2020)과 Lee and Lee(2019) 등의 연구에서도 55세 이상 인구를 중고령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보아도 적합하다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지칭한다.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Hwang & Hwang, 2017; M. Kim, et al., 2020; P. Kim, et al., 2014; Lee & Lee, 2019; Lifshitz, et al., 2018; Ractham & Techatassanasoontorn,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im, et al.(2014)은 6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보기기 활용 수준은 삶의 질에 대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wang and Hwang(2017)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구성형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ee and Lee(2019)는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 et al.(2020)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취약형”에 비해 “적극 활용형”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해외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Ractham and Techatassanasoontorn (2014)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 건강, 레저, 소비자, 자아 및 친구생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ifshitz, et al.(2018)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검색, 업무수행, 여가활동 이용 등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관계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은 사회학, 정치

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산으로 보았으며, Coleman(1988)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규범으로 정의하였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을 전체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충분히 발현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고 설명하였다. 위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본은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며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 참여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 사회 참여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확산은 온라인 기반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Lee, 2013). 사회적 자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통신 기술은 본질적으로 약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유용하며(Haythornthwaite, 2002), 오프라인에서와 다르게 정치, 종교, 성별, 민족 및 연령대를 초월하여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Williams,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Pew Research Cen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강한 네트워크와 결속적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가까운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향도 높은 것을 발견했다(Pew Research Center, 2006).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Yoon, et al.(2016)은 중고령자가 온라인을 통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강화하며 우울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Lee and Lee(2014)는 온라인 사회적 자본이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중고령자에게 더 강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자본

중고령자는 이동성의 저하, 은퇴, 배우자 또는 지인의 사망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들는다. 하지만 인터넷은 중고령자의 신체·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SNS를 통해 자녀, 친구, 이웃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Jun, 2015). 즉, 인터넷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을 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Hogeboom, et al, 2010; Lee & Lee, 2014; Lee & Myeong, 2010; Russell, et al, 2008). Lee and Myeong(2010)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각종 생활정보 검색, 인터넷 쇼핑 등 인터넷 활용이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적·사적인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Lee(2014)는 40세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40대 이상일수록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Russell, et al(2008)은 호주의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인터넷의 통신과 정보 기능의 폭넓은 활용은 친구 및 가족과 접촉을 유지하고,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Hogeboom,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이메일 사용, 정보 검색, 여행 등의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중고령자는 은퇴, 사별 등으로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한 외로움, 우울, 사회적 소외감의 영향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웰빙, 정신적 행복, 우울 등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Chung & Sung, 2012; Forsman, et al, 2013; Kim, et al, 2015; Sum, et al, 2008; Yoon, et al., 2016). 구체적으로 Sum, et al(2008)은 호주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과 웰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자본의 차원에서 신뢰와 삶의 가치가 높을수록 생활 수준, 삶의 성취 등의 개인의 웰빙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ung and Sung(2012)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항목 중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나 제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Forsman, et al(2013)은 핀란드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정신적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 구성원들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접촉과 친구 간 일생의 관계는 공통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소속감뿐만 아니라 공유된 생활 이벤트, 사회적 지원, 상호 공감과 신뢰로 인해 중고령자들의 정신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et al(2015)은 65세 이상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규범, 신뢰, 정보 공유 등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상

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결속형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Yoon,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변수, 생활스트레스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연관시키기보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제도, 사회적 규범과 같은 일부 요인을 단편적으로 또는 몇 가지 요인들을 결합하여 사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et al.(2018)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의 우울 및 자살사고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요소(신뢰, 네트워크, 규범)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살사고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매개로, 우울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는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자본 배양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장애인·농어민·저소득·장노년층의 독거여부, 취업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일반국민 표본크기는 7,000명(만 55세 이상 장노년층 2,300명 포함)으로 표본추출은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을 활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를 통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전국의 중고령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며,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실태와 사회적 자본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조사 대상자

2,300명 중 모든 변수에 대해 목록별 결측치 제거방식(List 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1,662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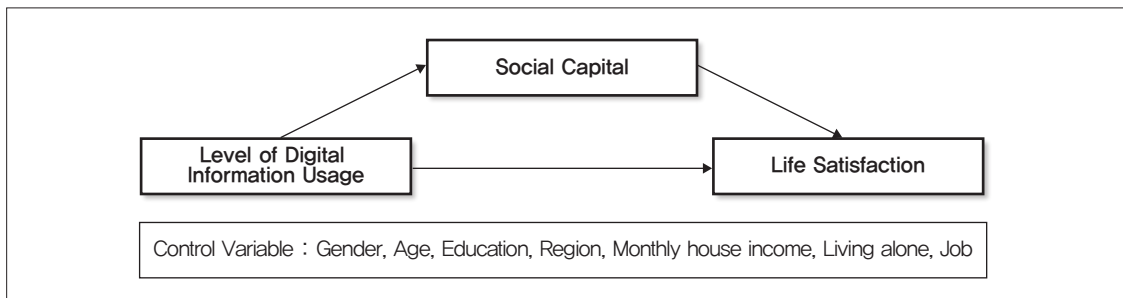
2.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고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회귀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Choi and Song(2020)은 고령자의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im, et al.(2012)은 베이비붐세대의 정보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때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에 함께 투입해야하며 아울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는 세 번째 단계에서 더 적게 나타나거나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앞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zero이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조건이 만족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Baron & Kenny, 1986). 최종적으로 매개변인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가 0보다 큰지를 Z-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변수는 ‘내 삶은 이상과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우수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다시 살면, 거의 아무것도 안 바꿀 것이다’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으로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는 0.879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및 동일한 문항을 사용한 Lee and Lee(2019)과 Hwang and Hwang(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방법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의 3가지 차원을 측정하였다. 첫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최근 한 달 이내 인터넷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했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은 정보검색, 전자우편, 메신저, 교육, 생활서비스 등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정도를 뜻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28개의 문항을 4점척도(전혀 이용 안 한다-자주 이용한다)로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는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뜻하며, 24개 문항을 4점척도(전혀 이용 안 한다-자주 이용한다)로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3개 항목 간 가중치는 4 : 4 : 2 로 100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항목은 총 53개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가 0.97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매개변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윌리엄스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련해서 온라인 공동체의 연결적·결속적 속성으로 10개씩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Williams, 2006), 문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문항은 총 20개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0.897으

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05명(42.4%)이었고 여성이 957명(57.6%)이었다. 연령대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705	42.4
	Female	957	57.6
Age	55-64	1,047	63.0
	65-74	556	33.5
	75-84	58	3.4
	85 or older	1	0.1
Education	Primary school or below	156	9.4
	Middle school or below	446	26.8
	high school or below	921	55.4
	University or more	139	8.4
Region	Metropolitan city	1,423	85.6
	Except metropolitan city	239	14.4
Monthly hous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89	23.4
	Less than 3 million won	423	25.5
	Less than 4 million won	361	21.7
	Less than 5 million won	254	15.3
	More than 5 million won	235	14.1
Living alone	Alone	134	8.1
	Not Alone	1,528	91.9
Job	Unemployed	619	37.2
	Employed	1,043	62.8
Total		1,662	100

는 55-64세가 1,047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56명(9.4%), 중학교 졸업이 446명(26.8%), 고등학교 졸업이 921명(55.4%), 대학교 졸업 이상이 139명(8.4%)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응답자(1423명, 65.6%)가 군에 거주하는 응답자(239명, 14.4%)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423명, 25.5%)이 가장 많았으며, 독거여부의 경우 비독거(1528명, 91.9%)가 독거(134명, 8.1%)보다 많고, 취업여부는 취업(1043명, 62.8%)이 미취업(619, 37.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매개변수로 사회적 자본이며,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최소 55점에서 최대 96.73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64.1165(SD=7.503)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최소 5점에서 최대 33점으로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20.94(SD=4.272)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최소 20점에서 최대 78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53.78(SD=8.783)로 나타났다.

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문제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r=.310, p<.01$),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r=.231, p<.0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

<표 2> 주요변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n=1,662)

Variable	Average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64.1165	7.5029	55	96.73	1.492	2.237
Life Satisfaction	20.9392	4.2718	5.00	33.00	-.157	.477
Social Capital	53.7768	8.7833	20.00	78	-.589	.679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in Variables

(n=1,662)

Variabl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1		
Life Satisfaction	.312**	1	
Social Capital	.231**	.310**	1

* p<.05, ** p<.01, *** p<.001

도($r=.312, p<.01$)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수 및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4. 변수 간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소득, 독거여부,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도 함께 투입하였다. 가설 1의 검증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149, p<.001$). 즉,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 성별, 독거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고 여성,

비독거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1)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1단계 과정으로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231, P<.001$). 즉,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4> 변수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1,662)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B	(S.E)	B	
(constant)		-.049	1.844		-.026
Independent Variabl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149	.015	.262	10.226***
Mediating Variable	Social Capital	.121	.011	.248	10.678***
Control Variable	Gender	-.437	.217	-.051	-2.010*
	Age	.074	.021	.098	3.565***
	Education	.082	.157	.015	.521
	Region	-.475	.286	-.039	-1.662
	Monthly house income	.105	.050	.060	2.086
	Living alone	-.828	.376	-.053	-2.204*
	Job	.009	.232	.001	.038
$R^2 = .170 / F = 37.630^{***}$					

* $p<.05$, ** $p<.01$, *** $p<.001$

인터넷 환경에 의한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Hogeboom, et al, 2010; Lee & Lee, 2014; Lee & Myeong, 2010; Russell, et al, 2008)와도 일치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2단계 과정으로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312, P<.001$),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Hwang & Hwang, 2017; M. Kim, et al., 2020; P. Kim, et al., 2014; Lee & Lee, 2019; Lifshitz, et al., 2018; Ractham & Techatassanasoontorn, 2014)와 일치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과정으로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beta=.2531, P<.001$),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beta=.25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beta=.312$)보다 3단계($\beta=.253$)에서 더 적게 나타나 사회적 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검증

3단계 검증과정을 통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1단계와 비교했을 때 독립변수들의 β 값들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 3단계 유의경로가 적합함이 검증되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표 5〉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ep		B	t	R ²
			Step	Path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Step 1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 Social Capital	.231	9.686***	.053
			Step 2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 Life Satisfaction	.312	13.361***	.097
			Step 3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 Life Satisfaction	.253	10.939***	.157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251	10.845***	

* p<.05, ** p<.01, *** p<.001

〈표 6〉 Sobel test 결과표

〈Table 6〉 Results of Sobel Test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bel Test
			Z
Social Capital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Life Satisfaction	7.292***

* p<.05, ** p<.01, *** p<.001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Sobel's Z값이 7.292($p < .001$)으로 산출되었으며 유의성 기준인 ± 1.96 보다 크게 나타나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Z값 및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만55세 이상 중고령자 1,662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하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채택). 즉,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고 사회적 자본 수준, 연령이 높으며 비독거가구,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Hwang & Hwang, 2017; M. Kim, et al., 2020; P. Kim, et al., 2014; Lee & Lee, 2019; Lifshitz, et al., 2018; Ractham & Techatassanasoontorn, 2014)와 일치하였다.

둘째,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가설 2 채택). 즉,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때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은 중고령자가 온라인 환경을 통해 가족, 친구, 지인 등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커뮤니티 등 연결형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Hogeboom, et al, 2010; Lee & Lee, 2014; Lee & Myeong, 2010; Russell, et al, 2008)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 정신적 행복, 웰빙과 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hung & Sung, 2012; Forsman, et al, 2013; Kim, et al, 2015; Sum et al, 2008; Yoon, et al., 2016)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함의와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여부, 디지털 정보 생산·공유 활동, 정보화 활용 정도 등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Khalaila & Vitman-Schorr, 2018; Dorin, 2007; Kim,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여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산출하였으며,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고(Hogeboom, et al., 2010; Lee & Lee, 2014),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Kim, et al., 2015; Yoon, et al., 2016),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때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

의 디지털 격차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및 관련 연구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학문적 함의를 갖는다.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PC와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고령자들에게 있어서 PC나 모바일기기 이용,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 사회참여 등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중고령자의 인터넷 활용이 보편적인 정보 활용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고령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령자 개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령자의 PC와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기회와 이용 능력의 증대와 관련하여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때 단순히 기술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검색, SNS 활용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 행정서비스, 금융거래, 생활 복지 서비스 등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활동 참여 상호작용과 체험을 통한 교육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함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을 속성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사회적 자본을 세분화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내의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중고령자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결과에서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성별, 연령, 가구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를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의 한계로 고려하지 못한 건강 관련된 변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Choi, H. & Song, I.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246-255.
- {최형임·송인옥 (2020).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권 6호, 246-255.}
- Chung, S. & Sung, M. (2012).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4), 249-272.
- {정순돌·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권 4호, 249-272.}.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rin, M. (2007). "Online education of older adults and its relation to life satisfaction." *Educational Gerontology*, 33(2), 127-143.
- Forsman, A., Herberts, C., Nyqvist, F., Wahlbeck, K. & Schierenbeck, I. (2013). "Understand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for ment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geing & Society*, 33(5), 804-825.
- Haythornthwaite, C. (2002). "Strong, weak, and latent ties and the impact of new media." *The Information Society*, 18(5), 385-401.
- Hogeboom, D., McDermott, R., Perrin, K., Osman, H. & Bell-Ellison, B. (2010). "Internet use and social networking among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6(2), 93-111.
- Hwang, H. & Hwang, Y. (2017). "Gaps and Reasons of Digital Divide within the Elderly in Korea : Focusing on Household Compositi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4(3), 359-386.
- {황현정·황용석 (2017).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가구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권 3호, 359-386.}
- Hwang, J. (2019). "The Effect of Digital Divide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Informatization Policy*, 26(3), 53-68.
- {황주희 (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6권 3호, 53-68.}
- Jeong, M. & Lee, Y.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et Us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1), 63-85.
- {정민숙·이유리 (2012). 정보화교육 참여노인의 인터넷활용 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권 1호, 63-85.}
- Jun, D. (2015). "Effects of the Elderly Computer/Internet Competence on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3), 389-409.
- {전대성 (2015). 노년층의 정보화 역량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9권 3호, 389-409.}
- Kang, B., Kim, H. & Lee, M. (2014).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159-175.
- {강보라·김희섭·이미숙 (2014).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감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권 2호, 159-175.}
- Khalaila, R. & Vitman-Schorr, A. (2018). "Internet use, social networks, lonelin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adults aged 50 and older: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Quality of Life Research*, 27(2), 479-489.
- Kim, B., Linton, K. & Lum, W. (2015).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and Korean elderly immigrants." *Journal of Social Work*, 15(1), 87-100.
- Kim, E., Choi, Y. & Lee, M. (2018).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on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Mental Health & Social Work*, 46(2), 179-208.
- {김은아·최윤정·이미경 (2018). 노인의 우울, 자살사고와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권 2호, 179-208.}
- Kim, K., Lee, S., Yoon, H. & Kwon, G. (2015).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old-old elderly of more than 70- year-old on thei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889-3901.
- {김경희·이성국·윤희정·권기홍 (2015). 70세 이상 후기 노인의 사회적자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권 6호, 3889-3901.}
- Kim, M., Kim, Y. & Um, S. (2020). "A Study about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the Older Peopl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3(1), 51-74.
- {김명일·김영선·엄사랑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3권 1호, 51-74.}
- Kim, M., Kwon, S. & Park, C. (2012). "Babyboomer'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Effect on the Digital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master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7, 113-136.
- {김미령·권순재·박충선 (2012). 베이비붐세대의 정보활용이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7권, 113-136.}
- Kim, P., Kim, H. & Lee, M. (2014). "The Effect of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7(1), 25-47.
- {김판수·김희섭·이미숙 (2014). 고령층의 정보 활용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권 1호, 25-47.}
- Kim, S., Shin, H. & Kim, Y. (2020). "Analysis on Predictive Factors of Digital Accessibility Level of Middle-old Age Group: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Informatization Policy*, 27(1), 55-71.
- {김수경·신혜리·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 접근수준 예측요인 분석: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권 1호, 55-71.}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7).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Paradigm of Public Informatization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Future Policy*. Jinche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Lee, B. & Kim, Y.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net-Using of the Elderly People: Focusing on Social Network and Human Reliance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4(3), 79-105.
- {이복자·김용우 (2010). 노인의 인터넷활용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네트워크와 신뢰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권 3호, 79-105.}
- Lee, B. & Myeong, S. (2010). "The Perceived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ternet use on Building Social Network for the Elderly People: The Cas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3(4), 151-179.
- {이복자·명승환 (2010). 노인의 정보화인식과 인터넷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권 4호, 151-179.}
- Lee, H. & Lee, N. (2014). "Effect of Online Community Activities on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153-163.
- {이환수·이나리 (2014).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9호, 153-163.}
- Lee, H. & Lee, S.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Elderly People: Focusing on community, meet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7(2), 1-7.
- {이향수·이성훈 (2019).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와의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권 2호, 1-7.}
- Lee, K. (2019). "The Digital Divide and Challenges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8), 16-28.
- {이기호 (2019).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정보 격차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권 8호, 16-28.}
- Lee, S.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Smart Device and SNS on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161-180.
- {이승민 (2013). 스마트기기와 SNS 활용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권 2호, 161-180.}
- Lifshitz, R., Nimrod, G. & Bachner, Y. G. (2018). "Internet use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functional approach." *Aging & mental health*, 22(1), 85-91.
- Lissitsa, S. & Chachashvili-Bolotin, S. (2016). "Life satisfaction in the internet age-Changes in the past decad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97-206.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2018 Survey of Digital divide*. Daegu: National Information

- Society Agency.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Pew Research Center. (2006). *The Strength of Internet Tie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chtham, P. & Techatassanasoontorn, A. (2014). *Social media use and senior citizen's life satisfaction*. Australas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ec 8-10.
- Russell, C., Campbell, A. & Hughes, I. (2008). "Ageing, social capital and the Internet: Findings from an exploratory study of Australian 'silver surfers'."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7(2), 78-82.
- Statistics Korea (2019). *2017~2067 the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Daejeon: Statistics Korea.
- {통계청 보도자료 (2019).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 추계>. 대전: 통계청.}
- Sum, S., Mathews, M., Pourghasem, M. & Hughes, I. (2008). "Internet technology and social capital: How the Internet affects seniors'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1), 202-220.
- Sung, W. & Hwang, S. (2017). "A Review of Intelligent Society Studies: A look on the future of AI and policy issues." *Informatization Policy*, 24(2), 3-19.
- {성육준·황성수 (2017). 지능정보시대의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모색. <정보화정책>, 24권 2호, 3-19.}
-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 Yoon, H., Lee, O., Beum, K. & Gim, Y. (2016). "Effects of online social relationship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623-637.
- {윤현숙·이은경·범경아·김영자 (2016). 노인의 온라인 사회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5호, 623-637.}